

“귀농 정착 고민하는 당신, 담양에서 먼저 살아볼래요?”

담양군, 귀농귀촌 체험프로그램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5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체류형 사업...대덕면 운수대동마을서 11월까지

담양군은 도농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귀농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5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숙박과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에 대해 탐방해보는 체류형 지원사업으로 올해

11월까지 운영한다. 마을에서 직접 살아보며 문화관광지 탐방, 귀농귀촌 교육 참여, 귀농 선도농가 견학, 일손 돕기, 재능 기부 등의 미션을 수행하면

점수가 주어지고, 일정점수 이상 획득하면 수료와 함께 참여 이수 점수도 인정받게 된다. 대상 지역은 전라남도에서 선정된 일반형 22개 마을·농가이며, 담양군은 대덕면 운수대동마을(한성곡 위원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군에서는 현재 운영 마을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이

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참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마을에서는 전자출입명부(KI-pass)를 등록해 주 3회 이상 참가자의 출입상황 점검 및 건강 상황을 진단 관리하고 있다. 참여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운수대동마을 (☎61-382-2626)로 사전 문의를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격은 주민등록 기준 전라남도 외 거주자로, 귀농·귀촌

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가족이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출향향우들 또는 지역을 방문해 보신 분들이 직접 살아보며 연간 2,000여 명이 귀촌하는 살기 좋은 담양에 대해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 ‘백세미’,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장려상

전남도와 대형 유통업체 판촉·온라인 공동마케팅 추진



20일 열린 2020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시상식에서 곡성군 백세미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는 전남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매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을 선정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 추천한 브랜드 쌀을 농업기술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6개 전문기관에서 밥맛, 품위, 안전성, 품질 순도 등을 평가

해 선정한다. 백세미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됨에 따라 곡성군은 1천만원의 시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또한 전라남도도 함께 대형 유통업체 판촉 및 온라인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게 된다. 백세미는 100%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되며, 특유의 누룽지 향과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올 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구입한 쌀로도 유명세를 치렀다. 곡성군에서 백세미를 생산한 것은 2016년부터 지자체와 석곡농협, 농가의 노력으로 짧은 기간 만에 명품 브랜드 쌀로 등극할 수 있었다. 이미 2017년 11월에 전국 친환경 경농산물 품평회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했고, 2018년 8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2018년 농협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2019년 농협 우수사례 경진대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등 매년 수상을 이어갔다.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완판되는 등 현재도 계속 인기몰이 중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백세미가 전국의 브랜드 쌀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구례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선정

구비 6억 확보 총 12억 투입
다양한 안전정보 중앙 연계
스마트시티 기술통해 해결

구례군은 국토교통부의 ‘2020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공모사업에서 지난 17일 최종 선정되어 구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올해 말까지 지방비 포함 총 12억원을 투입하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방범·교통·재난 등 다양한 안전정보를 중앙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하여 도시 안전망을 구축



하고, 스마트시티 기술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육성 사업이다. 경찰서·소방서·CCTV 통합 관제센터의 정보를 연계하여 112·119 긴급출동 지원 및 수배

차량 검색 지원 등의 협업 서비스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례군은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범죄율 감소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화순 수돗물 ‘이상 무’...화순군, 상수도 시설 긴급 점검

화순군은 한국수자원공사 화순사무소의 정수장 특별 점검과 화순군의 상수도 시설물 긴급 점검,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 수질과 시설물에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가 확산하면서 군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물을 긴급 점검하고, 관리 강화에 나섰다. 군은 현재 춘양, 청풍·이양, 동북, 백아 등 정수장 4개소를 운영 중이다. 화순읍, 한천면,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동면, 시평면은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정 정수장을 공급받는다.

정수장 4곳은 모두 밀폐된 완속 여과지에서 수돗물을 생산 중이다. 군은 구조상 유충 유입이나 서식은 어려운 환경이나 보다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과 수질 불안감 해소를 위해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시설물을 긴급 점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700번 버스 ‘7001번’·‘7002번’으로 분리 운행

그린로·우정로 방면 2개 노선 운행 따른 승객 불편·혼동 해소

나주시는 ‘동신대학교~빛가람동’ 구간 2개 노선을 운행하는 700번 시내버스를 탑승객 편의를 위해 ‘7001번’과 ‘7002번’으로 분리·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00번 버스는 동신대학교에서 출발해 나주역을 거쳐 한곡농어촌공사 사거리에서 ‘그린로’(빛가람병원 후문 정점)와 ‘우정로’(우정정보사업센터 정점) 방면으로 나누어 2개 노선을 운행해왔다.

이로 인해 정확한 운행 노선을 인지하지 못하고 버스에 탑승하거나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 등 불편 사례가 종종 발생해 해당 버스를 7001번과 7002번으로 분리, 운영하기로 했다. 7001번(그린로 방면) 버스는 ‘동신대-나주역-한국농어촌공사-빛가람초·중학교-빛가람병원 후문’을 7002번 버스(우정로 방면)는 ‘동신대-나주역-우미린A-



중흥2차A-우정정보사업센터’ 노선 구간을 각각 운행한다.

문화관광의 중심지
영암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영암군
YEONGAM-GUN

평범한
일상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드림트가요센터/월출산 기찬랜드